

제목 Theme: 에바다 Ephphatha!

본문 Scripture: 마가복음 St. Mark 7:31-37 절

31.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Again He went out from the region of Tyre, and came through Sidon to the Sea of Galilee, within the region of Decapolis.**

32.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아와 앉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They brought to Him one who was deaf and spoke with difficulty, and they implored Him to lay His hand on him**

33.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Jesus took him aside from the crowd, by himself, and put His fingers into his ears, and after spitting, He touched his tongue with the saliva;**

34.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and looking up to heaven with a deep sigh, He said to him, "Ephphatha!" that is, "Be opened!"**

35. 그의 귀가 열리고 혀의 맷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And his ears were opened, and the impediment of his tongue was removed, and he began speaking plainly.**

36. 예수께서 저희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And He gave them orders not to tell anyone; but the more He ordered them, the more widely they continued to proclaim it**

37.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병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They were utterly astonished, saying, "He has done all things well; He makes even the deaf to hear and the mute to speak."**

두로와 시돈은 상업지역이며 세상의 모든 물정이 다 있는 지극히 세상을 대표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가볼리는 정치적 또는 군사적으로 얹혀져 있는 도시로 갈리리 바다 동쪽과 남쪽에 위치해 있는 그 당시의 대표적인 10 개의 도시가 있는 곳을 말하는 것으로 무역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지역으로, 지금 안정되지 않고 있는 이 세상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 두로는 아합왕 때에 우상을 섬겨 여호와의 징벌을 받았던 곳으로(**열왕기상 21:23**), 지금 허무한 세상을 대표하는 곳이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을 지나 예수님의 복음 사역지인 갈릴리 호수에 도착하셨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상징하는 곳이고 갈릴리 호수는 예수님께서 사역자를 부르신 소명있는 곳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갈릴리 라고 하지 않고 갈릴리 호수에 오셨다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간절한 심정으로 사역자를 부르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18-22** 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 두고 예수를 찾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가지로 배에서 그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이 지역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에 의해서 한 사람을 데려오게 나왔는데 그 사람은 “귀먹고 어눌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이 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고쳐 달라고 하지 않고 안수하여 달라고 한 의미는 고침을 받아 주님께서 쓰시는 사역자로 삼아 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32 절).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셨다고 하셨습니다(33 절). 이 내용은 소명으로 이 세상에서 불러 낸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를 말하는 헬라어 “에클레시아”的 의미는 “이 세상에서 불러 낸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사역자이며 소명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불러내어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35 절에 “그의 귀가 열리고 혀의 맷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으셨다는 의미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 세상에 대하여 귀를 달으라는 뜻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그리고 데가볼리는 세상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떠나 갈릴리 호수로 오셨다는 의미와 이 세상 모든 소리를 닫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역자가 되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명을 받은 사역자는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오직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기준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중에 하나를 소개하시는 “나사로와 어느 부자”에 대한 내용 중에서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어느 부자의 간구와 아브라함의 대답을 통하여 중요한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 장에서 “간구하오니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찌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곳에서 모세와 선지자는 성경을 대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람들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 뜻을 이를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침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도록 아파하신 것은 “악한 말”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는 세상의 악한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 속에서 능력이 있고 말 속에서 사탄의 저주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마태복음 15:11,18 절)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악한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 장 13 절에 “개구리 같은 세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세상의 더럽고 악한 것을 회개를 통하여 거듭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을 받게 되어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하늘이 열리고 천국 백성이 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에 “그의 귀가 열리고 혀의 맷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라고 하셨습니다(35 절). 이것이 세상 것을 버리고 거룩한 예수님을 통하여 소명을 받고 성령을 받아 오직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선택 받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소명을 받은 자에게 말하기를 **“저희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병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이 분명하게 하는 자에게 경계하사 복음을 전하되 자랑은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는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자기 자랑을 더욱 널리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이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경계하신 것은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자기 자랑 즉 세상적인 것은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적인 말을 더 좋아하고 목사님의 설교에서도 이야기처럼 스토리가 있는 간증은 좋아하지만 순수한 성경을 본문으로 강해처럼 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소명을 받은 사역자들은 반드시 성경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자기 자랑이 되는 간증이나 세상적인 좋은 말 즉 도덕적이고, 인문학적인 감상에 젖게 하는 것은 복음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심히 놀라”면서 말하기를 천국 복음이 아니라 세상적인 관심 즉 인문학적인 감상에 젖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잘 하였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병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예수님의 복음은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역사를 성경을 통하여 알고, 현재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미래에 하늘 문이 열리는 영원한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바다는 열리라는 뜻인데 이 내용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소명을 통하여 제자와 같은 사역자를 부르시는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소명으로 불러 세우신다는 것입니다(33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1 사람들이 데리고 나왔지만 선택과 소명은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 요한복음 **1:48** 절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2 예수님께서는 필요한 사람을 필요할 때 부르십니다 - 마태복음 **9:9** 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3 소명으로 부르신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 마가복음 **1:38** 절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둘째,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 놓고 오직 우리 **주님의 것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33 절 “양 귀에 넣고 침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1 소명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 요한 **1 서 2:15** 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서 좋아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좋아 온 것이라”

2 소명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주님의 것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 요한복음 **20:21** 절
“예수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 에베소서 **6:11** 절 “마귀의 궤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3 성경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소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 요한복음 **20:22** 절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 사도행전 **18:28** 절 “이는 성경으로써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일러라”

셋째, 복음을 전할 때 오직 구원을 이루는 **복음으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36** 절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1 복음은 오직 구원을 위하여 믿음으로 사역해야 합니다 - 이사야 **45:17** 절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입어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영세에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
베드로전서 **1:9** 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2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 베드로전서 **4:11** 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3 복음은 오직 성경을 통하여 영생의 길을 증거해야 합니다 - 요한복음 **5:39** 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
디모데후서 **3:15** 절 “성경은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